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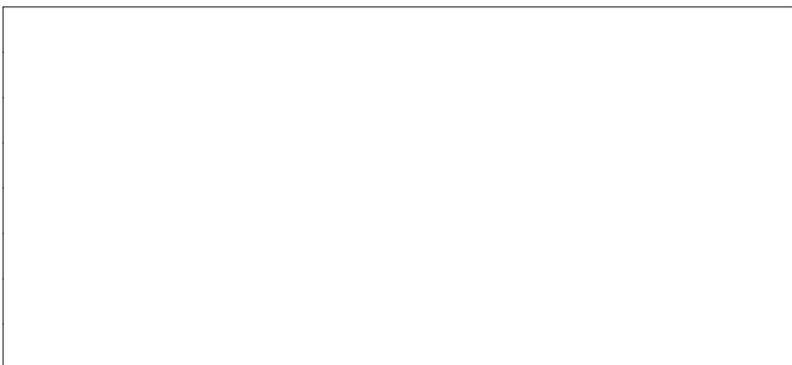
국어 영역

6모 전날까지 해야 할 것

- ◆ **틀렸던 / 헛갈렸던 문항 위주로 복습하자.**
 - 지금까지 풀었던 교재 펼쳐보며 틀린/헛갈린 문항 다시 보자.
 - WHY / HOW 분석은 꼼꼼히 읽어두자.
- ◆ **시간 재고 기출 1회분씩 풀자.**
 - 3개년 수능 기출(밴드 PDF 활용)을 80분 재고 풀자.
 -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며 풀자.
- ◆ **자기 전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자.**
 - 6모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험 끝나는 장면까지 상상하자.
 - 80분 동안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자.

6모 아침에 해야 할 것

- ◆ 이 예열 자료에 수록된 지문 차분히 읽자.
- ◆ 실전 운영 원칙 4가지를 외워서 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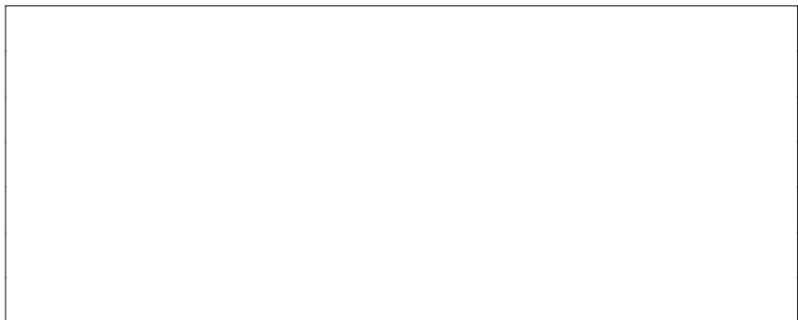
6모 이후 해야 할 것

- ◆ **절대 스스로 답 보며 채점하지 말자.**
 - 답을 보는 순간 실력 상승 기회를 몽땅 잃는다.
 - 남에게 채점을 부탁하거나 온라인 채점 서비스 활용할 것!
- ◆ **100점이 나올 때까지 다시 풀자.**
 -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좋다! 100점이 나올 때까지 다시 푼다.
- ◆ **본인만의 '손필기 해설'을 작성하자.**
 - 노트를 준비하고 각 지문에 대한 요약을 작성하자.
 - 모든 문항 / 모든 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도 써보자.
- ◆ **Why & How 피드백을 작성하자.**
 - 모든 문항에 대해 시험 운영 원칙 4가지 각각을 지켰는지 분석하고 쓰자.
 - 틀린/헛갈린 문항은 WHY / HOW 분석 진행하고 정리하자.

실전 운영 원칙 4가지

1. 풀이 순서/시간 지키자.

- 계획과 너무 다른 풀이를 해서도 안 되지만, 계획을 너무 딱딱하게 지킬 필요도 없다. '유연하게' 지킬 것.
- 자신의 풀이 순서 / 시간 계획을 써보자.



2. 침착하게 꼼꼼히 읽자.

- 급하다고 대충 달려 읽는 순간 문제도 날아간다! 절대 급해지지 말자.
- 한 번에 제대로 읽으면, 다시 읽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시간은 단축된다!
- 뒤의 예열 자료 읽을 때도 '침착하게 꼼꼼히' 읽어볼 것!

3. 뇌피셜로만 풀지 말자.

- 정답 선지의 확정은 '의심 → 근거 확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정답의 근거가 확인이 안 될 시, 나머지 4개의 선지를 다시 보면서 꼼꼼히 소거하자.

4. 3트는 없다! 별표 치자.

- 모든 문제는 2트(두번째 시도)까지만 도전하자. 2트에서도 안 풀리면 별표 치고 과감히 넘겨야 한다.
- 3트는 없으니까 2트는 훨씬 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



문의: <https://open.kakao.com/me/ysk2026>

6모 해설강의 안내: <https://orbi.kr/00073276468>

*분석서 / 6모 리마스터링 / 동형기출집 자료 제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이외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접하곤 한다. 시각 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문자가 제공하는 정보, 즉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지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한다. 이 두 정보들은 서로 참조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시각 자료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예시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목적에 더하여 글에서 다른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각 자료는 여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 ②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부각할 수 있다.
- ③ 독자가 시각 자료에 끌리다 보면 글을 읽는 목적을 잃을 수 있다.
- ④ 시각 자료의 용도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답)
- ⑤ 독자는 낯선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의미는 글 내용과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상호 참조되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③ 문자로만 구성된 글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면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었을 수 있다.
- ④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시각 자료의 관련성을 따지고 시각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⑤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야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답)

3. <보기>는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다.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글 속에 있는 그림을 보니, 그림1에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것을, 그림2에서 그것들을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진 모습을 담고 있었다.

- ① 비행기 그림은 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예시적 시각 자료이다.
- ② 그림 1은 글 내용을 시각화해 보여 주면서 글 내용도 보완해 주는 설명적 시각 자료이다. (답)
- ③ 그림 2는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여 주는 보충적 시각 자료이다.
- ④ 그림3은 글 내용에 있는 설명 대상을 표현하여 글의 주제와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그림2와 3은 글에서 다른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을 복기하여 여백에 요약해보세요.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 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 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을 복기하여 여백에 요약해보세요.

양 원수가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재촉하니, 남해 태자가 크게 노해 천만 종의 물고기에게 명하자 잉어 제독과 자라 참군이 기운을 돋우더니 용맹스럽게 뛰어나왔다. 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베어 내고 백옥 채찍을 들어 한 번 휘두르니 백만 군병이 일제히 짓밟히며 삼시간에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태자는 몸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다. 마침내 태자가 원수의 군사에게 잡혀 결박된 채로 원수의 말 앞에 엎드리자, 원수가 크게 기뻐하며 징을 쳐서 군사를 돌렸다. 그때 수문군이 양 원수에게 알려왔다.

“백룡담 낭자가 직접 진 앞에 나아와 원수를 치하하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양 원수가 사람을 보내 맞아들이자 용녀가 원수의 승전을 치하한 후, 술 백 석과 소 백 마리로 군사를 먹이니 군사들이 배를 두드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용맹한 기운이 전보다 백 배나 더했다.

양 원수는 용녀와 함께 앉아 남해 태자를 소리 높여 꾸짖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사방 도적을 치면 일만 귀신도 감히 명을 거역하는 자가 없는데, 너같이 조그만 놈이 천명을 모르고 감히 대군을 거역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함이다. 한 자루의 보검이 있는데 이것은 위징 승상이 경하의 용을 베던 칼이다. 내가 마땅히 네 머리를 베어 우리 군사의 위엄을 떨쳐야겠지만, 너의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 인간 세상에 비를 널리 내린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용서한다. 지금부터 이전 행세를 고쳐 남자께 죄를 짓지 말아라!”

양 원수가 태자를 끌어 내치게 하니 남해 태자는 숨도 크게 못 쉬고 돌아갔다. 그때 갑자기 상서로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붉은 놀이 영롱하고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했다.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며 붉은 옷 입은 사자가 종종걸음으로 나와서 말했다.

“양 원수가 남해 태자를 치고 공주의 위급함을 구하신 줄을 동정 용왕이 아시고 친히 진문 앞에 나아가 치하하려 하시나, 정사에 매인 몸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별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맞아 들이고자 하니 원수는 공주를 모시고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적군이 비록 물러갔으나 아직 진을 친 것이 있고, 또한 동정호가 만리 밖에 있으니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가 길 것이다. 군사를 거느린 자가 감히 멀리 나갈 수 있겠는가?”

“이미 여덟 용이 수레의 멩에를 갖추었으니 반나절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용의 수레를 타고 동정호로 간 양 원수는 용왕의 잔치에 참석한다. 잔치 후 형산을 유람하던 양 원수는 여러 승려가 모인 절에 들어간다.

원수가 곧 불전에 나아가 분향재배하고 전각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터 놀라 깨어났다.

사방을 살피니 자신은 진중에서 책상에 기대어 있었고, 아침은 이미 밝아 있었다. 원수가 이상히 여겨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너희들도 꿈을 꾸었느냐?”

그들이 일제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소장들도 꿈에 원수를 따라 신병귀졸과 크게 싸워 이기고, 그 대장을 사로잡아 돌아왔으니 이는 실로 도적을 무찌르고 사로잡을 좋은 조짐입니다.”

원수가 꿈속의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장수들과 함께 백룡담에 가 보니,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흐르는 피는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 원수가 친히 표주박을 들고 물을 떠서 맛을 보고 나서 병든 군사에게 먹이니 병사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원수가 군사와 말을 모두 몰아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니 기뻐하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그러자 도적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곧 항복했다.

양 원수가 천자에게 첩서를 계속 올리자 천자는 크게 기뻐했다.

- 김만중, 「구운몽」 -

가보자고



2026학년도 수능 국어

고전은 E형게

6월 모평 대비 part. 1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작품 쉽게 읽기

이야기 ver

《#1. 하늘이 내려준 아이, 진옥》

옛날 명나라 청주라는 곳에 **김시광**이라는 이름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높은 벼슬을 지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아내 **여씨**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늘 걱정이었죠.

어느 날, 여 씨는 산속의 **화주암**이라는 절로 가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밤, 꿈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과 선녀가 나타나 말했어요.

“우리는 천상에서 잘못을 저질러 인간 세상에 왔단다.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길게.”

선녀는 아이를 안겨 주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열 달 뒤, 정말로 여 씨는 찌싹하고 잘생긴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진옥**’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옥이 다섯 살이 되었을 무렵, 김시광은 아들을 화주암으로 보내 공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김시광은 수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적군에게 붙잡혀 외딴 섬에 버려지고 말았어요.

한편, 여 부인은 전쟁을 피해 도망치다가 이름이 하원인 여승이 되었어요. 가족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2. 화산 도사를 만나다》

진옥은 갑작스러운 난리를 겪고 나서 부모님을 찾아 고향으로 갔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방황하던 중, 진옥은 산속에서 **화산 도사**를 만나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에게서 글과 무술을 배웠어요.

5년 후, 화산 도사가 말했어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 과거 시험을 보고 이름을 날려라. 그러면 부모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네 짝도 만날 것이다.”

진옥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다시 **화산 도사**의 **신령**을 만났어요. 그는 진옥에게 **여자의 옷** 한 벌을 주고 사라졌죠. 이어서 만난 점쟁이는 말했어요.

“너는 장차 대원수가 되어 많은 군사를 거느릴 것이고, 부모님도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진옥은 점쟁이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길을 이어갔습니다.

《#3. 어머니를 만나지만, 서로를 몰라보다》

진옥은 **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는 제선군의 아버지, 광록공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고, 우연히 **여 부인**도 구경하러 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잔치에서 누가 **옥동자**를 훔쳤다는 일이 벌어졌고, 여 부인과 진옥이 범인으로 몰려 매를 맞았어요.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4. 유 소저를 만나다》

진옥은 길을 가다 **백발 노인**을 만났고, 그 노인은 말했어요. “**여자의 옷**을 입고 유 승상의 집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의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진옥은 여자의 옷을 입고 유 승상의 집을 찾아가, 집이 망해서 거지꼴이 되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유 승상의 부인은 불쌍히 여겨 그를 딸과 함께 있게 해주었죠.

진옥은 유 소저와 시와 글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지냈고, 결국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설명한 뒤 말했죠.

“우리 혼인합시다. 저는 거울을 드릴게요. 당신은 이 옥지환을 주세요.”

유 소저도 **옥지환**을 건네며 약속했고, 진옥은 다음 날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어요.

《#5. 황제의 청혼》

과거 시험에서 진옥은 **장원급제**했어요. 황제는 자신의 딸, 우양 공주를 장원의 신랑으로 삼으려 했죠. 공주는 주춧 뒤에서 진옥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고, 황제는 진옥에게 **공주**와 **혼인**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옥은 이미 유 소저와 **정혼**한 사이임을 밝혀 혼인을 거절했고, 황제는 일단 파혼을 권하며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요.

《#6. 유 승상 집으로 돌아가다》

진옥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외삼촌**이 있는 익주로 향했어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유 승상을 찾아갔지만, 유 승상은 이미 딸을 박 승상의 아들과 혼인시키기로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속상해했어요.

유 소저는 진옥과의 인연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채, 박 승상의 아들과 혼인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병이 나빠졌어요.

유 소저는 어머니에게 진옥과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했고, 유 승상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혼인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혼사를 깰 수 없다며 화를 냈죠.

그 후 유 소저는 진옥에게 편지를 쓰고, 하늘에서 날아온 **청조**라는 새에게 전달을 부탁했어요.

《#7. 황제에게 편지를 보여주다》

진옥은 꿈에서 화산 도사가 유 소저와 혼인하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마침 청조가 가져온 **편지**를 받고 감동했죠. 진옥은 유 소저에게도 답장을 보냈고, 황제가 다시 혼인을 권하자 유 소저의 편지를 보여주며 거절했어요.

황제는 진옥을 감옥에 가두었고, 유 승상을 불러 사실을 확인했어요. 유 승상은 정혼한 일이 없다고 했고, 황제는 그에게 집안 문제를 잘 정리하라고 했어요.

유 승상은 딸이 **자결**하려 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돌려, 박 승상의 아들과의 혼인을 깨기로 했어요.

《#8. 혼인을 허락받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어떤 신하들이 진옥의 아버지가 적군과 내

통했다며 그를 벌하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신하들은 진옥을 변호했지만, 황제는 진옥을 도운 **김용철**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유 소저의 병이 심해지자, 유 승상의 부인은 사촌인 **황태후**에게 부탁했고, 황태후는 황제에게 진옥과 유 소저의 혼인을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결국 황제는 이를 받아들였고, 진옥은 감옥에서 풀려나 유 소저와 **결혼**했습니다.

《#9. 진옥, 대원수가 되다》

그 후 **남 선우**가 다시 명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유 승상의 가족은 북경으로 **피난**했고, 전국 각지에서 위급한 소식이 들어왔죠. 황제가 진옥을 출전시키려 고민할 때, 한 도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진옥을 **대장**으로 삼으시지요.”

황제가 진옥을 부르자, 그는 병을 핑계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화산 도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어요.

“지금이 바로 나아가갈 때다.”

진옥은 결심했어요. 그는 상장군 **대원수**가 되어,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10. 진옥, 전쟁에서 승리하다》

진옥은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화산 도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도사는 진옥에게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번 싸움에서 ‘**동돌콩**’이라는 적장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진옥은 도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군사들을 숲속에 몰래 숨겨 적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고, 진옥은 매복해 둔 군사들을 이용해 적을 무찌르는 데 성공했죠.

“지금이다! 추격하라!”

진옥은 용감히 명령했고, 군사들은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 **남태국**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옥은 동돌콩의 목을 베고, 남 선우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11. 아버지를 다시 만나다》

전쟁에서 **승리**한 진옥은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화산 도사의 꿈을 꾸었어요. 도사는 이번에도 진옥에게 특별한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배를 타고 돌아가거라.”

진옥은 도사의 말대로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배에 올랐어요. 하지만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쳤고, 진옥의 배는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외딴 무인도에 닿게 되었어요.

무인도에 도착한 진옥은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오래전에 헤어졌던 자신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

“진옥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진옥과 김시광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함께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12. 용궁으로 가는 길》

배를 타고 중원으로 향하던 길, 바닷속에서 한 **아이**가 배 위로 올라왔어요. 그 아이는 말했어요.

“저는 **남해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진옥님을 모셔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진옥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이를 따라 **바닷속 용궁**으로 향했어요. 용궁은 빛나는 진주와 물고기들로 가득한 신비로운 곳이었어요.

남해 용왕은 진옥을 반기며 말했어요.

“진옥 장군, 지금 동쪽 바다의 **동국 용왕**이 우리 바다를 자꾸 침범하고 있어 큰일이요. 제발 우리를 도와 주시오.”

진옥은 용왕의 부탁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13. 공주의 모험》

한편, 진옥이 혼자 배를 타고 떠난 뒤 소식이 끊기자, 옛날에 진옥과 결혼하지 못했던 **우양 공주**는 마음속에 화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진옥이 나라를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합니다.”

황제는 그 말을 믿고는 크게 화를 내며 명령했어요.

“진옥의 아들, 의운을 죽이고 유 소저는 감옥에 가두라!”

이 소식을 들은 조정의 신하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진옥을 모함하는 신하들은 엄벌을 주장했고, 진옥을 지지하는 신하들은 이를 막으려 했죠.

혼란이 커지자 **황태후**가 나섰어요. 그녀는 황제를 설득하며 말했어요.

“폐하, 아이를 죽이는 건 너무합니다. 차라리 **강물**에 버리도록 하십시오.”

황제는 결국 명령을 바꾸어, 의운을 강물에 던지라고 지시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던 유 소저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진옥이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14. 전생을 알게 된 진옥, 용궁의 선물》

그 무렵, 진옥은 바다 속 용궁에서 동국 용왕을 기습 공격했고, 결국 **항복**을 받아냈어요. 남해 용왕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큰 잔치를 열었고, 여러 **선관**들을 불러 함께 축하했어요.

잔치 도중 한 선관이 진옥에게 신비한 **과일**을 건넸어요.

“이걸 먹어보시지요. 전생을 알게 될 겁니다.”

진옥이 그 과일을 먹자, 자신이 예전에 하늘나라의 **선관**이었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는 깊은 감동에 젖었어요.

용궁을 떠나게 된 날, 남해 용왕과 선관들이 진옥에게 여러 가지 **보물**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 보물은 진주, 구슬, 부채, 칼, 술 같은 귀중한 것들이었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용왕은 진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진옥은 보물들을 받아 들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15. 살아난 의운》

한편, 강물에 던져진 어린 **의운**은 다행히도 바닷속 **용신**의 도움을 받아 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물에 떠밀려 이리저

리 떠다니던 그는 “엄마…” 하고 울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이 **통판**이라는 관리가 그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런 데에… 어디서 왔을까?”

이 통판은 의운이 불쌍해 보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운은 유 승상의 조카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16. 다시 위기에 빠진 유 소저》

진옥이 사라지자 공주는 마음속에 불안함을 품고 있었어요. ‘혹시 진옥이 아직 살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어 공주는 **점쟁이**를 찾아갔죠. 점쟁이는 말했어요.

“진옥은 살아 있으며, 내일 황성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깜짝 놀라 **정동한** 등과 몰래 의논했어요.

“내일 오시(오전 11시) 전에 유 소저를 **처형**합시다. 진옥이 돌아오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해요.”

그리고 아무도 **강**을 건널 수 없도록 막아 두었죠.

조정에서는 전여선과 정동한 등이 나서 유 소저의 처형을 주장했고, 이를 막으려던 **김응철**은 옥에 갇혔어요.

《#17. 진옥, 꿈속에서 위기를 알다》

그 무렵 진옥은 졸고 있다가 꿈속에서 **유 소저**를 만났어요.

“제 목숨이 위태로워요… 어서 와 주세요…”

꿈에서 깨어난 진옥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때 화산 도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오늘 안으로 황성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내를 잃게 될 것이다.”

진옥은 아버지를 뒤따라 오게 하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말에 올라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18. 아들과의 운명적인 만남》

길을 가다 잠시 쉬 진옥은 **소학**을 가르쳐 달라는 똑똑한 **아이**를 만났어요. 진옥은 잠깐 시간을 내어 책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다 아이에게 물었어요.

“네 아버지는 누구시냐?”

“글쎄요… 저는 부모님을 몰라요. 통판 아저씨 댁에서 자랐어요.”

진옥은 그 아이가 자신이 찾던 아들 **의운**임을 알아차렸어요. 두 사람은 감격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19. 유 소저를 구하다》

진옥과 의운은 함께 말을 타고 강가로 달려갔지만, 강에는 배 한 척도 없었어요. 낙심하던 그때, **화산 도사**가 다시 나타나 조화를 부려 배를 만들어 주었고, 두 사람은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유 소저가 **처형**되기 직전, 진옥은 그녀를 구해냈고, 용왕에게 받은 신비한 **진주**를 입에 넣어 기절한 아내를 되살렸어요.

《#20. 황제의 뉘우침과 포상》

그 뒤 황제가 진옥을 불렀지만, 진옥은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고 상소문을 올렸어요.

“폐하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정의를 회복하십시오.”

진옥은 남해 용왕이 보낸 **편지도** 함께 올렸고, 황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 김응철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진옥을 승상 **남평후**로, 유 소저를 **정렬부인**으로, 김시광을 **초왕**으로 봉하고, 진옥에게는 **양산군**의 작위를 주어 간신들을 처벌하게 했어요. 진옥은 아들 의운을 키워준 이 통판에게는 **양주 자사**의 벼슬을 내려주었죠.

황제는 공주가 저지른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처분을 유 소저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공주의 운명은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결정하거라.”

유 소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 여인을 벌해야 마땅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

공주를 마주한 유 소저는 칼을 들었다가, 이내 눈을 감고 말했어요.

“네가 저지른 죄는 매우 크다. 하지만… 나는 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네 죄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꾸미지 마라.”

공주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황제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대의 덕을 높이 사겠소, 정렬부인.”

《#21. 잔치에서 어머니를 만나다》

어느 날, 진옥의 어머니 여 부인은 여러 **승려**들과 함께 낙양에서 열리는 큰 잔치를 구경하러 갔어요. 화려한 연회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과 음악, 춤이 가득했죠.

그 무렵, 진옥도 잔치에 참석해 아버지와 함께 풍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악 소리에 살짝 졸던 진옥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화산 도사가 다시 나타났죠.

“진옥아, 잔치에 온 여승들 사이를 잘 살펴보거라. 그 안에 네 **어머니**가 계시다.”

진옥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 곤장 여승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어머니시죠?”

“진옥아! 네가 정말 진옥이니?”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헤어졌던 모자가 드디어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진옥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이제 **‘공숙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옥은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다시 찾게 되었답니다.

《#22. 다시 꾸며진 음모》

진옥이 승상을 지내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자, **공주**와 **전여선**은 점점 더 시기심에 불탔어요.

“저 진옥이 모두의 인정을 받다니…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해!”

들은 몰래 **태자를 독살**하고 나라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끔찍한 계획을 꾸미었어요. 공주는 태자에게 몰래 독약을 먹이고, 진옥이 머물던 곳에는 무사들을 숨어 있게 했어요.

그때 공주는 황제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폐하! 태자가 위독합니다. 진옥과 함께 어서 동궁으로 가셔야 합니다!”

황제는 놀라 진옥을 데리고 황궁으로 향했어요. 한편, **전여선**은 역모가 드러날까 두려워 궤 밖으로 도망치려다가, 진옥으로 착각한 무사들에게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23. 태자를 살리다》

김응철은 이 모든 사실을 진옥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일은 모두 공주와 전여선이 꾸민 일입니다. 전여선은 이미 죽었고, 공주는 아직도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진옥은 서둘러 화산 도사를 찾아갔고, 도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주며 말했어요.

“이 약을 태자에게 쓰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이요.”

공주는 전여선이 죽자 더 이상 의논할 상대가 없어 혼자 고민하다가, 황제에게 또 거짓을 꾸며 말했어요.

“폐하... 진옥이 태자와 전여선을 모두 죽였습니다.”

황제는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며 진옥을 불렀어요. 그런데 진옥이 태자에게 화산 도사의 약을 먹이자, 쓰러졌던 태자가 눈을 뜨고 숨을 쉬었어요!

“태자가 살아났다!”

황제는 놀라 소리쳤어요.

진옥은 모든 진실을 밝히며 말했어요.

“폐하, 공주와 전여선이 나라를 어지럽히려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황제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고, 공주를 처단했어요. 그리고 역모에 가담했던 모든 죄인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진옥과 그의 가족은 또 한 번 정의를 지켜냈고,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24. 평화로운 말년》

시간이 흐르면서 초왕 부부(진옥의 부모)와 유 승상 부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진옥과 유 소저는 80세가 넘도록 함께 살다가 같은 날 평온히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의운은 병부 상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명성을 떨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1. 하늘이 수작질해서 낳은 애》

명나라 청주. 김시광이라는 스니 잘나가는 선비가 있음. 출신 좋고, 벼슬 높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음.

근데 애가 없음. 그래서 부인 여 씨랑 같이 늘 창밖 보면서 한숨 씬.

“이 집안... 내가 끊기겠네...”

그래서 여 씨, 바로 절 간다. 운빨 믿음. 화주암 가서 소원 빔. 그날 밤? 선관이랑 선녀가 꿈에 내림.

“야 우리가 천상에서 스된 죄인인데 애 하나 맡길게.”

“키워라. 나중에 국가급 대형 이벤트 터짐.”

10개월 뒤? 애 진짜 나옴. 애 이름 ‘진옥’.

잘생김 + 주인공 포스 + 버프 풀옵션. 근데 5살 되자마자 아빠가 화주암으로 직행시킴.

“저기다 꽃아두면 애가 사람 된다.”

그리고 하필 그 타이밍에 나라에서 전쟁남. ㄹㅇ 실화. 김시광은 수도에서 귀가하다가 납치당함.

그대로 외딴섬에 버려짐. 여 씨는 난리 피하다가 출가해버림. 본명 버리고 ‘하원’으로 리브랜딩. 여승됨. 가족은 그대로 해체됨.

오프닝부터 해체 엔딩. 스타트 스니 빠쌌.

《#2. 진옥, 도사 만나서 스펙 찍고 나감》

진옥은 갑자기 전쟁에 말려듦.

고향 가서 부모님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음.

혼자 터덜터덜 산속 걷다가... 화산 도사 만남. 이 양반, 그냥 도사 아님. 스텝 분배 이상함.

직관 + 근력 + 교양 + 점괘 다 MAX. 도사한테 글도 배우고, 무공도 배움.

진옥 스펙 급상승.

5년 후, 도사 대사 나옴: “슬슬 스토리 진행해라. 과거 시험 보러 가. 공명도 얻고, 부모도 찾고, 너랑 이어질 여자도 나옴.”

진옥: “이게 ㄹㅇ이네” 하고 출발.

근데 가다가 도사 또 나옴.

이번엔 ‘신령 버전’으로 나와서 여복 한 벌 건네고 사라짐.

진옥: “이건 또 뭐야...” (하지만 받음)

그리고 점쟁이도 등장.

“넌 대원수 된다. 군사 몰고 다님. 부모 찾음. 스포는 여기까지.”

《#3. 엄마랑 서로 못 알아봄 ㅋㅋ》

진옥, 하람이라는 동네 도착. 근데 마침 광록공 생일파티 중. 세팅은 됐고, 변수는...

그 파티에 실종됐던 진옥 어머니 여 씨도 와있음.

Q. 그럼 상봉?

A. ㄴㄴ

갑자기 잔치 도중 사건 터짐.

“옥동자 실종됨!!”

그리고 죄 없는 진옥 + 여 씨 둘 다 억울하게 범인 됨.

거기서 매 맞고 풀려났는데 서로 딱 마주침.

진옥: (응... 설마 그 여승이 우리 엄마가... 아닐걸...)

여 씨: (저 아이... 우리 아들 닮았는데... 아닐 거야...)

둘 다 머뭇거리다 그냥 지나감.

작가가 독자 가슴 쥐어짜는 구간임.

《#4. 여복 입고 인생 역전하러 감》

진옥 걸다가 백발 노인 만남.

노인 NPC 대사 나옴: “여복 입고 유 승상 집 가. 너 인연 거 있음.”

진옥: “...진짜요?”

(하지만 또 받음)

여복 입고 유 승상 집 감.

그리고 또 구라침.

진옥: “집안 망함. 굶고 있음. 잠도 길바닥에서 잠ππ.”

유 승상 부인: “이 아이 불쌍해서 어찌...”

바로 입주. 그리고 딸 유 소저랑 동거 시작됨. 시서 이야기 나옴. 분위기 흐름 땀고,

진옥 드디어 말함.

“사실 나 남자임. 그리고... 너랑 결혼하고 싶음.”

“이 거울은 네 거. 네가 가진 옥지환은 내 거.”

유 소저: “ㅇㅋ.”

진옥: “ㅇㅋ.”

혼인 약속. 그리고 다음 날 과거 시험 보러 감. 떠날 때 분위기, 그냥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엔딩.

《#5. 공주, 나대기 시작함》

진옥 시험 봤더니 장원급제. 그냥 수석함.

황제: “이 자식 뭐냐, 사윗감임.”

공주: (주렴 뒤에서 보기) “할... 나 이 사람 할래...”

그래서 황제: “우리 딸이 너 맘에 든다. 결혼해라.”

근데 진옥, 1도 흔들림 없음.

“ㄴㄴ 이미 정혼자 있습니다. 죄송요.”

황제: “아::: ㅇㅋ... 그럼 일단 파혼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진옥: (노답)

《#6. 정혼자 집 갔다가 스토리 급전개》

진옥, 갑자기 외삼촌 생각나서 익주 감. 제사 지내고 돌아오다 유 승상 집 방문.

유 승상, 진옥 인상 보고 감탄함. 근데 이미 딸 박 승상 아들이랑 혼인 박음.

유 소저: (그거 듣고 그대로 쓰러짐) “진옥한테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어머니한테 진실 털어놓음. 유 승상도 알게 됨. 근데 혼인 약속 이미 해버림.

유 승상: “안 된다. 이미 약속했어.”

유 소저: “근데 전 진옥이랑 약속했어요!”

싸움각 잡힘.

유 소저, 진옥한테 편지 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보냄.

하늘에서 내려온 청조 (진짜 새임. 비둘기 아님) 편지 물고 날아감.

《#7. 진옥, 편지 하나로 감옥행》

꿈에서 도사 또 등장함.

“유 소저랑 결혼 안 하면 니 인생 조진다”

이 와중에 청조가 유 소저 편지를 전해줌.

진옥: (편지 받고 눈물 한 줄기) “이 여잔 진짜다... 역시 내 여자임...”

답장 보냄. 꺾꺾 눌러쓴 감성 회신. 그런데 사비 황제 또 꺼둠.

황제 : “우리 딸이랑 혼인하러나니까?”

진옥: “ㄴㄴ 유 소저랑 약속함. 이 편지 보셈.”

황제: ㅋㅋㅋ ㄱㅅㅅ

바로 감옥에 처넣음.

그리고 유 승상 불러다가

황제 : “딸이랑 진옥 약속했냐?”

유 승상: “엥 그런거 없었음.”

황제: “그럼 니네 집안 문제 알아서 정리해라.”

근데 노빠꾸 유 소저가 자결 시도했다는 말 듣고 유 승상 멘붕음.

바로 박 승상 집안 혼인 파기.

《#8. 감옥에서 결혼까지 1분컷》

근데 타이밍 스뽀. 조정에서 진옥 부친이 적군과 내통했다는 말 나오기 시작함. 모함 ㅇㅇ.

황제는 진옥 편든 김응철도 감옥에 처넣음. 이 와중에 유 소저 상태 안 좋아짐. 병남. 누움.

유 승상 부인이 황태후에게 직통 청원 넣음.

유 승상 부인 : “애가 죽게 생겼어요...”

황태후: “야 황제. 애네 그냥 결혼 시켜라.”

황제: “ㅇㅋ...”

진옥 풀려남.

그리고 유 소저랑 결국 혼인함. 감옥에서 웨딩드레스.

《#9. 진옥, 거절 한 번 했다가 또 출전》

남 선우가 다시 쳐들어옴. 전국 난리.

황제: “진옥 보내야겠다...”

도사 아바타 또 등장해서 조언함.

도사 : “진옥 씨. 만렙이라 탈량 만땅임.”

황제, 진옥 불러서 전장 보내려 했는데 진옥 또 고개 저음.

“지금 몸이 좀... 썩썩”

근데 그날 밤, 도사 꿈 속으로 박차고 들어옴.

도사: “ㅂㅅ야;;; 지금이 가야 할 때다. 이진 운명임.”

진옥: “ㅇㅋ. ㄱㄱ”

그리고 바로 대원수로 임명됨.

《#10. 동돌콩 씹어먹기》

대군 이끌고 출전함. 군기 팍 잡음. 도사 꿈에 또 나옴.

“적장 이름이 ‘동돌콩’이다. 이 놈은 진짜 조심해라.”

진옥은 병력 매복시킴. 전투 개시.

“지금이다! 후드려 까!!!”

동돌콩 군대, 매복에 걸려서 터짐. 진옥, 동돌콩 목 뺏음. 실화임.

남 선우 항복함. 진옥 = 나라 구함.

《#11. 무인도에서 부친 리타이어 복귀》

전쟁 끝나고 돌아오던 진옥. 또 꿈에서 도사 나옴.

도사: “이번엔 혼자 배 타.”

진옥: “혼자요?”

도사: “ㅇㅇ 강 타.”

탐.

근데 풍랑 와서 무인도 표류함. 거기서 어떤 노인을 만남.

“아버지!!!”

“진옥이냐!!!”

김시광 리타이어 풀고 복귀. 부자 상봉함.

둘이 같이 배 타고 돌아가기로 함.

《#12. 용궁 각성 루트 돌입》

배 타고 귀환 중에 바닷속에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물 위로 뜬.

“남해 용왕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따라오셈.”

진옥: “이벤트 뒀네.”

아버지랑 같이 용궁 감. 바닷속인데 숨 안 참. 물고기 사이로 ㄹㅇ 궁궐 나옴.

남해 용왕: “우리 바다에 동국 용왕이 자꾸 쳐들어온다. 진옥님, 좀만 도와주셈.”

진옥: (눈 감고 한숨 쉼) “또 싸워야 되는 거냐...?”

도와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BGM 깔리고,

분위기: ‘운명의 선택지 앞에 선 남자’

의운은 강물행. 유 소저는 감옥에 처박힘. 그리고 그 안에서 오열함.

“진옥... 제발... 와줘...”

《#14. 전생 떡밥 회수 + 용궁 스킨 구매》

그 시각 진옥 뭐하나? 용궁에서 동국 용왕이랑 1:1 찍고 있었음. 바로 급습, 항복 받아냄. 압도적.

남해 용왕: “ㄷㄷ... 고맙다 진옥아. 파티 열자.”

용궁 풀셋팅 잔치 개막. 선관들 총출동. 그중 한 선관, 수상한 과일 하나 건넨.

선관: “이거 먹으면 전생 본다.”

진옥: “에이 설마...”

(먹음)

띠링. 전생 영상 플레이됨. 자기가 하늘나라 선관이었다는 기억 회수.

진옥: (내가 진짜... 그냥 인간이 아니었구나...)

잔치 끝나고 남해 용왕이 보물 주머니 들고 옴.

“진주, 구슬, 부채, 칼, 술... 니 꺼다.”

“태자 살릴 수 있음.ㅇㅇ.”

공주, 전여선 죽고 나니까 멘붕. 근데도 다시 헛짓거리 함.

공주 : (ㄷ대따 일단 질러) “진옥이 다 죽었어요!”

황제: (믿을까 말까…)

그런데 진옥이 태자한테 약 먹임. 태자 기상.

“살았다!!!!”

황제: “공주 참수. 관련자 전원 처형.”

진옥: “정의 복구 완료.”

《#24. 해피엔딩 정석》

시간이 흘러, 초왕 부부와 유 승상 부부도 차례로 세상 떠남.

진옥과 유 소저는 80세 넘도록 잉꼬부부. 같은 날 평온히 눈
감음.

아들 의운은 병부 상서로 승진.

자손들? 대대로 공명. 대대로 흥함.

- 김진형, 북천가 -

Scene 1 작품 쉽게 읽기

0107기 ver

옛날, 한 관리(김 교리)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북쪽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유배지를 관리하는 본관(지역을 관리하는 벼슬아치)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교리, 이번 유배가 억울한 일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소.”

“당신이 떠날 때 온 백성이 울었다던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여기서 함께 즐기며 지내봅시다.”

본관은 악공과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김 교리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유배 온 사람이다. 이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소.”

그는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선비들이 김 교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리님, 저희도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둘 찾아오던 선비들은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6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끼고 와서 배움을 청하고, 글제를 내어 골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본관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관들만 보다가 김 교리 같은 분을 만나니, 신기하구려.”

하지만 김 교리는 학문을 가르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도 내 일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을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겠소.”

그러나 선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김 교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공부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시를 짓고, 심심할 때는 글을 외웁니다.

비록 변방에 있는 외로운 몸이었지만, 시와 술로 마음을 달랠 수 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리는 서리를 맞은 변방의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게 날아가고..., 북쪽 땅을 굽어보니, 오랑캐의 땅이구나...”

유배지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개가죽 옷을 입고 다녔으며, 주식은 조밥과 기장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관의 배려 덕분에 김 교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MZ ver

어느 날, 김 교리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

“아, 개억울한데;; 왜 내가 유배를 가야 함?”

결국 북방으로 유배 확정.

말 타고 개추운 북쪽까지 감.

근데 거기 있던 본관(지역 책임자)이 반겨줌.

“김 교리님, 당신 죄 없이 유배 온 거 저도 다 압니다.”

“백성들도 다 울었다던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즐기며 지내십쇼.”

본관이 갑자기 잔치 빌드업

기생, 악공 다 불러라!! 오늘부터 논다!!!

근데 김 교리 한숨 쉼.

“아니, 나 유배 온 몸인데, 여기서 술 마시고 노는건 좀 예바 같은데?”

그렇게 잔치 거부하고 혼자 칩거 모드 ON.

김 교리 혼자 조용히 유배 생활하는데, 소문이 남.

“야, 김 교리 왔다는데 학문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명, 두 명...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60명 수강신청 완료.

북방 유배지 학원 개강

“김 교리님, 글제 좀 내주시죠!”

“배움 청합니다!”

갑자기 북방에서 대치동 국어 1타 강사됨.

수령: “아니, 우리 북방에서 이런 문관급 지식 가진 분을 보다니!”

김 교리: (아니, 나도 공부할 정신 없음...)

근데 결국 수강생들한테 떠밀려 강의 시작함.

심심할 때는 시 외움.

고향 그리울 때는 시 씀.

학생들 오면 강의함.

남는 시간에는 술 마심. (어차피 갈 데 없음)

그렇게 북방에서 강사+시인+유배자 멀티 역할 수행 중.

어느 날, 계절 바뀌고 가을바람 슬슬 읊.

김 교리 불현듯 창밖을 바라봄.

“남쪽 하늘 보니까 기러기 처량하게 날아가고...”

“북쪽 보니까 오랑캐 땅임 ㅋㅋ”

“와... 진짜 내 인생 레전드다 ㅋㅋㅋㅋ”

거기다 지역 주민들 의복 상태 심각함.

개가죽 옷이 국룰.

조밥+피밥+기장밥이 주식.

여긴 진짜 헬이구나 싶음.

근데 그나마 본관이 먹을 거 챙겨줘서 생존 유지.

“아, 이 사람 없었으면 나 한 달 반도 못 버텼을 듯.”

Scene 1 내신형 OX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 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
 북관 수령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오
 악공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 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 풍류 무엇이나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경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두셋 오니 육십 명 되는구나
 책 끼고 와 배움 청하고 글제 내어 골라 달라 부탁하네
 북관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 전혀 없어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 보내도다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에 마음 붙여
 문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편히 날 보내다
 가을바람에 놀라 깨니 변방 산에 서리 왔네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개가죽 상하의는 상놈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네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실낱같은 이내 목숨 한 달 반을 보존했네

- 1) '본관'은 화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화자를 질책하고 있다.
- 2) 화자는 기생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 3) 화자는 문관인 자신의 명성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4) 화자는 '기러기'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이 유배지에서 느끼는 감정을 드러낸다.
- 5) 유배지에 도착하여 시와 술로 세월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 1) X '본관'은 화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화자의 상황을 위로하고 있다.
- 2) X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 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 풍류 무엇이나'를 통해 화자는 기생과 어울려 노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O
- 4) O
- 5) O

Scene 2 작품 쉽게 읽기

이오기 ver

어느 날, 김 교리는 신선의 동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며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그때, 기생 군산월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우아한 모습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꽃처럼 곱구나."
 군산월은 거문고를 연주하며, 맑은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끝에서 나오는 곡조는 오색빛처럼 빛났습니다. 김 교리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아무리 강직한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겠구나."
 "역사책에서도 '미인 앞에 영웅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단단하다! 하지만 군산월을 보니, 큰소리를 치기 어렵군..."
 그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편했을 텐데, 본 것이 병이로다..."
 그렇게 김 교리는 이천 리나 떨어진 변경에서, 유배지 생활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양금 연주를 끝낸 후에 다시 절로 내려왔습니다.
 산속 승려들이 대접하는 음식은 정갈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그는 다시 유배지로 돌아왔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곳에서 놀던 것이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
 그렇게 한동안 풍류를 즐기던 김 교리는 어느 날, 수노(하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칠보산을 유람할 때 본관이 기생을 데려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호사스러웠구나."
 "이제 다시는 기생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 후로 그는 선비들과만 어울리며, 시를 짓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탐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산과 강이 글이 되어 술잔 속으로 떨어지고, 강물은 그림이 되어 종이 위에 그려지는구나."
 그러나 그는 군산월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고운 모습은 마치 꿈처럼 아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생 군산월 등장 - "야, 신선의 세계 뭐냐?"
 어느 날, 기적적으로 개쩌는 자연경관 발견.
 산, 바위, 폭포... 이거 뭐 신선의 세계 아님?
 근데 거기에 미친듯이 아름다운 기생 등장.
 군산.월(금강산 최고의 기생)
 술잔 들고 노래 부름.
 거문고 치는데 손가락 끝 오색 빛남.
 한 마디로 그냥 NPC 아니고 전설급 캐릭터 등장.
 김 교리: "와... 이거 뭐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 같은데?"
 "진짜 역사책에서 보던 '미인 앞에 영웅 없다' 이거 실화였음ㅋㅋ"
 그렇게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함.
 "아니, 내가 유배 왔지? 근데 이렇게 살면 강 천국 아님?"
 한바탕 놀고 절집에 와서 절밥 먹음. 환상. 개꿀맛.
 근데 자꾸 회상대에서 놀았던게 생각나서 미치겠음;; 대존쟁이였는데....
 근데 좀 지나고 김 교리 갑자기 이성 ON, 정신 차림.
 "야, 나 유배 온 몸인데 기생이랑 어울리면 안 되지 않나?"
 갑자기 하인 수노 호출.
 "야, 앞으로 기생들 여기 못 오게 해라."
 "나는 이제 선비들이랑 학문하면서 시 쓰고 살 거임."
 그리고 북방 시학당 재오픈.
 기생 OUT
 선비 IN
 학문+시+술 조합 유지
 김 교리: "그래, 자연과 함께 시 쓰고 책 읽는 게 답이다."
 "산이 글이 되고, 강이 그림이 되어 내 손에서 피어나는구나..."
 근데...
 군산월의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안 지워짐.
 "아... 진짜 안 봤으면 편했을 텐데...ㅠㅠ"

Scene 2 내신형 OX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에 자취 남겨
 바람에 부친 듯이 이 광경 보는구나
 연적봉 지난 후에 선연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 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 있고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은 한 곡조 부르고
군산월 앓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다
 오동나무 거문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곱거니와
 가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너의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미인 앞에 영웅 열사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야 큰소리치라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이천 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잘한 것이 모두 다 네 덕이로다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다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대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흥 다하여 돌아와서 수노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선비만 데리고서 시 짓고 술 마시니
 청산은 글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된다
 군산월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 김진형, <북천가>

- 8) 기생 군산월의 모습을 꽃에 비유하여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 7) 대구법을 사용하여 군산월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다.
- 8) 화자는 기생과 어울리며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자 한다.
- 9) 수노에게 말한 이후에 화자는 선비들만 데리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태도를 보인다.
- 10) 선비와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면서 화자는 결국 군산월을 잊게 된다.
- 11) 해당 작품은 대화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12) 해당 작품에는 풍류에서 오는 흥취, 사대부로서의 체면 두 가지의 의식이 담겨있다.

- 6) O '군산월 앓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다'
- 7) O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 8) X '흥 다하여 ~ 불안하다.' '다시는 ~ 지휘하라'를 통해 화자는 기생과 어울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수노에게 기생이 못 오도록 하라 말한다.
- 9) O
- 10) X '군산월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에서 군산월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11) O 본관이 화자에게 말하는 장면, 화자가 수노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 12) O 풍류 흥취 : 산수 유람, 기생들과 풍류 즐김
 사대부 체면 : 유배 생활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한 사대부 비난 의식, 표면적으로 풍류 거부 및 반성, 유배지의 선비들에게 학문적 영향력을 미치며 글을 가르침

- 작자 미상, 임계탄 -

Scene 1 작품 쉽게 읽기

이야기 ver

옛날,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밭은 말라붙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백성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나라에서 곡식을 나눠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우리를 돕지 않겠어?”
“진홍(구호 곡식)이 온다고 하니, 조금만 버티자.”
하지만 현실은 백성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라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을 돕기 위해 창고에서 곡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취)들은 백성들에게 주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곡식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몰래 창고에 들어가 곡식을 조금씩 빼내면 아무도 모르겠지?”
“조금씩 빼서 내 집에 쌓아두고 몰래 팔아야겠다.”
그렇게 하루이틀이 지나자, 백성들에게 돌아갈 곡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껍질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백성들이 항의하자, 관리들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창고에는 아직도 곡식이 남아 있었지만, 모두 관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MZ ver

[대환장 조선 생존기]
옛날 조선, 하늘이 빠졌는지 대흉년이 찾아옴. 말 그래도 헬 조선 게이트 OPEN
논밭 다 말라붙고, 곡식도 제대로 안 자람. 백성들? 그냥 굶어 죽기 일보 직전.
“그래도 나라가 곡식 좀 나눠주겠지?”
“진홍(구호 곡식)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자...”
근데 현실은 ㄹㅇ 개판.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줘야겠다!” 선언함.
백성들? “와... 우리도 이제 밥 좀 먹나?” 기대감 MAX.
하지만 여기서 문제 발생.
탐관오리(취새끼)들이 창고에서 곡식을 먼저 빼돌리기 시작함.
“야야야, 밤에 몰래 창고 들어가서 쌀 좀 빼 와.ㅋㅋㅋ”
“조금씩 빼면 모르겠지? 집에 쌓아두고 비싸게 팔면 개이득ㅋㅋ”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창고에서 곡식이 사라지는 마법이 생김.
백성들: “아니, 우리가 받을 곡식은요?”
관리들: “에이~ 다 나눠줬어요~ 남은 거 없어요ㅎ”
창고엔 아직 곡식이 가득했지만, 그건 관리들 전용.
백성들에게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
백성들: “왓 더? 껍질만 던져주면 어찌라고?”
관리들: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요~ 더 이상 줄 수 없음ㅋ”

- 조우인, 출세곡 -

Scene 1 작품 쉽게 읽기

이야기 ver

옛날 한 관리가 있었다.
그는 변방의 관리로 임명되어 북쪽 경성(鏡城)으로 떠나게 되었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지만, 이 늙은 몸으로 변방에서 군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라니... 정말 뜻밖의 일이구나.”
그는 변방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막중하지만, 자신이 과연 이 일을 잘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한양을 떠나면서 그는 한없이 무거운 마음이었다.
험한 길을 지나 경성으로 가다 그는 한양의 흥인문을 나서서 북쪽으로 향했다.
녹양(현재의 의정부 근처)에서 말을 갈아탄 뒤, 먼 길을 계속 달렸다.
가는 길에 철령이라는 험한 고개를 지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이 매우 가파르고 지나기 어려운 곳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상살이에 비하면, 이 험한 길도 평지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는 철령을 넘어가면서, 과거 한나라 무제의 신하였던 급장유가 역올하게 회양으로 부임했던 일을 떠올렸다.
자신도 변방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 마치 귀양살이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씩씩했다.
“대궐에서 멀어진 몸...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눈물을 훔치며 몇 걸음 더 가니, 이제는 대궐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몰았다.
안번 북쪽으로 가자, 이제는 오랑캐 땅이 저 멀리 보였다. 그는 옛날 고려와 조선의 위대한 장군들이 이 땅을 개척했던 일을 떠올렸다.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이곳을 개척했지.”
“김종서 장군도 육진(현재의 함경도 지역)을 개척하며 나라의 영토를 넓혔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며, 마치 이곳의 초목조차 그 장군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용흥강을 건너 정평부를 지나면서도, 조상의 땅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마침내 도착한 만세교 앞, 그는 낙민루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고향이자, 예전 고대국가 옥저가 자리했던 역사 깊은 곳이었다.
“천 년이 흘렀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맑은 기운이 가득하구나.”
그가 부임한 경성의 군영은 한적했다.

MZ ver

옛날에 한 관리가 있었음.
그냥 조용히 글이나 읽고, 조정에서 일하다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너 이제 북방 가서 군사랑 백성들 다스려라~” 소리 들음.
“아니, 내가 글 쓰는 놈인데 갑자기 변방으로 보내면 어찌라는 거?”
“이 늙은 몸으로 군사 훈련하고 세금 걷고...? 이견 좀 아니잖아 ㅈㄸ..”
근데 명령이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음. 무거운 마음으로 한양을 떠남.
흥인문 나서면서 “아... 이거 꿈 아니냐?”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음 ㅁㅁ. 녹양(지금의 의정부쯤)에서 말 갈아타고 계속 달림.
그러다 험한 고개 도착 a.k.a 철령.
“이 길 엄청 험해서 다들 힘들어하던데요?”
근데 이 양반, 고개 넘으면서 한마디 함.
“세상살이에 비하면 이 정도는 평지나 다름없다.” (현실이 더 험하다는 뜻, 인생 뭐 있냐는 마인드)
가는 길에 갑자기 역사 모드 ON.
“아, 급장유라는 놈도 역올하게 회양으로 좌천됐다는 거 같은데...”
“나도 변방으로 쫓겨난 거 보면... 이거 빼박 귀양살이 아님...?”
그렇게 한숨 쉬면서 몇 걸음 가더니, 이제 대궐도 안 보임.
“에휴... 진짜 멀리 왔구나. 빼박이네...”
안번 북쪽 도착하니까 이제 오랑캐 땅이 보임.
“여기가 그 전설의 국경인가...?”
갑자기 역사 지식 소환.
“윤관 장군이 여진족 쓸어버리고 여길 개척했지.”
“김종서 장군도 육진 개척하고 국토 확장했는데...”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 초목조차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구나...” 하고 겸성 폭발.
용흥강 건너 정평부 지나 만세교 도착.
거기 있는 낙민루에서 주변 풍경 보는데, 감회가 남다름.
“여기가 바로 이성계 장군의 고향...”
“천 년이 지나도 맑은 기운이 가득하구나.”
(혼자 역사 드라마 찍는 중)
드디어 부임지 경성 도착!

- 작자 미상, 정진사전 -

작품 쉽게 읽기

이야기 ver

《#1. 아이가 없던 정 진사 부부》

옛날 충청도 괴산에 정 진사라는 부자 아저씨가 살았어요. 부인 장 씨와 잘 살았지만, 아쉽게도 마흔 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산에서도, 천에서도 빌었어요.

어느 날, 장 부인이 “어머, 나 아이 가진 것 같아요!” 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정말 쌍둥이 낳매를 낳았답니다! 누나 이름은 규봉, 동생 이름은 창인이라고 불렀어요.

《#2. 친구들과의 편지 소동》

같은 동네에는 박춘천 아저씨네 딸 박 소저(박창경), 최 승지 아저씨네 딸 최 소저(최옥인)가 있었어요. 이 두 소저는 규봉, 창인과 동갑이라 친하게 지냈답니다.

어느 날 밤, 박 소저가 시녀 운선을 시켜 편지를 보냈어요. “규봉아, 우리 집에 최 소저도 와 있으니까 같이 놀자!”

하지만 규봉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젯밤 둘이 돌아 앉아 있는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답장을 썼어요.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

《#3. 창인의 여장 장난》

창인은 속으로 툭툭했어요. ‘아, 나는 남자라서 두 소저 얼굴을 못 보잖아...’

결국 창인은 누나 옷을 몰래 입고 여장했어요. 창인은 “어머니, 저 잠깐 박춘천 댁 다녀올게요.”

장 부인은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이라며 창인을 보내주었어요.

창인은 규봉인 척 박 소저 집에 가서 박 소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최 소저 무릎에 다리를 얹고는 “에휴, 머리 아프다...” 하며 늑기까지 했답니다.

밤이 깊자 셋은 시를 주고받으며 놀았어요. 그런데 최 소저는 창인의 시를 보고 눈이 번쩍! ‘이거, 창인 아니야?!’

두 소저는 “우리가 속았어!” 하고 방 밖으로 나갔지만, 그 사이 창인은 박 소저의 옥지환, 최 소저의 명월패를 챙겨 창밖으로 사라졌답니다.

《#4. 들통난 장난》

집에 돌아온 창인은 규봉에게 신나게 말했어요. “누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완전 재밌었어!”

규봉은 깜짝 놀라 엄마한테 다 얘기했고, 장 부인은 “이 못된 놈! 애들이라고 다 장난이면 되냐!” 하며 혼냈어요.

창인은 “아이 장난이예요...” 하고 웃었지만, 규봉은 부끄러워져 두 소저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두 소저는 “흥! 받아줄 수 없어!” 하며 편지를 돌려보냈

어요.

《#5. 혼사 이야기 시작》

그 무렵 최 소저는 집에 돌아와 외삼촌 한 참봉을 만났어요. 엄마 한 부인은 “우리 최 소저, 김 참판 아들하고 혼사 이야기 중이야.”

최 소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엄마, 사실 저 박춘천 댁에서 창인에게 속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 최 승지에게 이 얘기를 하자, 최 승지는 “흠... 창인 그놈, 행동은 알밋지만 기개가 있긴 있네.”

하며 한 참봉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답니다.

“한 참봉, 혼인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한 참봉은 크게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6. 박춘천과 최 승지의 고민》

며칠 뒤, 박춘천은 최 승지를 찾아가 말했어요. “우리 두 집 모두 창인을 사위로 생각하고 있었군요?”

둘은 너무 놀라서 정 진사를 불러 상의했답니다. 정 진사는 “그럼 두 소저에게도 물어봐야지.”

하지만 최 승지는 “혼사는 미루면 안 되지.”

박춘천도 “그래, 우리 벼슬 올라가면 임금님께 말씀드려 보자.” 하고 동의했답니다.

《#7. 광철의 방문과 여장》

박춘천의 친구 김 참판은 아들 광철이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 승지 집에 청혼을 보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김 참판은 박춘천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 정 진사 집에도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걸 들은 박 소저는 이중사촌인 광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 광철 오빠를 집으로 부르면 안 돼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광철이 박춘천 집에 오게 됐어요.

박 소저는 광철과 친해졌고, 예전에 규봉 남매에게 당한 일을 말하며 “

오빠, 나 좀 도와줘요. 복수하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광철은 결혼할지도 모르는 규봉을 보고 싶어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박 소저는 광철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화장까지 시켰어요.

박 소저는 “오빠, 이 보자기를 가져가서 규봉 언니를 속여요. 그리고 돌아올 땐 신표(증거)를 받아 와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8. 규봉을 찾아간 광철》

광철은 붉은 보자기를 들고 정 진사 집으로 갔어요.

규봉은 수를 놓다가 예쁜 여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놀랐어요.

“누구세요?”라고 묻자 광철은 “마을 구경하다 들렀어요.”라고 했어요.

규봉은 “방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했고, 광철이 보자기를 내밀자 “이건 뭐예요?”라고 물었어요.

광철은 “보살이 되신 할머니의 초상화인데 찬문이 없어 슬퍼요. 언니가 시를 잘 짓는다 해서 왔어요.”라고 했어요.

규봉은 부끄러워하다가도 초상화를 보고 찬문을 지어줬어요. 광철은 “정말 멋져요!”라며 칭찬했어요.

규봉은 “하룻밤 자고 가세요.”라고 했고, 장 부인에게 광철을 소개했어요.

장 부인은 광철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모는 아름다운데, 골격이 남자 같기도 하고?’

《#9. 하루 더 머무는 광철》

광철은 규봉을 어떻게 놀릴까 생각했어요.

이 때, 장 부인이 광철을 불러 심심한데 이야기나 하고 자고 가라 했어요.

광철은 정신이 규봉에게 팔려 장 부인의 질문에 대충 대답했어요.

장 부인은 피곤해보이는 광철에게 그만 자리 들어가라고 했어요.

밤이 되자 광철은 잠을 못 이루고 규봉에게 가서 “헤어지기 아쉽네요.”라고 했어요.

규봉은 “하루만 더 있어요.”라고 했고, 광철은 하루 종일 규봉 옆에 있다가 “가사를 하나 써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규봉이 가사를 써주자 광철도 화답으로 가사를 써줬어요.

규봉은 광철이 쓴 가사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문 밖으로 나갔어요.

“속았어! 다 내 잘못이야!”라며 자신을 책망했어요.

광철은 규봉이 수놓던 필낭을 가지고 돌아왔고, 박 소저는 “정말 잘했어요!”라며 기뻐했어요.

정 진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꾸짖어야겠군!”

이라고 하며 동자를 박춘척 태으로 보내 광철을 꾸짖었어요.

《#10. 혼사와 과거 시험》

정 진사, 박춘천, 최 승지가 모여 혼사 이야기를 했어요.

박춘천은 “규봉과 광철의 혼사를 추진해 주세요.”라고 했고,

정 진사는 “좋아요, 쌍둥이 창인도 같은 날 혼인합시다.”라고 했어요.

창인과 광철은 과거 시험에 나가 창인이 1등, 광철이 2등을 했어요.

두 사람은 임금님께 그동안의 일을 아뢰었고,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같은 날 혼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인은 최 소저, 박 소저와, 광철은 규봉과 결혼했고, 여러 현감들이 와서 시를 짓고 잔치를 즐겼어요.

《#11. 평안도의 탐관오리 조사》

평안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생하자 임금님은 창인을 어사로 보냈어요.

창인은 마을을 둘러보고 허천대라는 나쁜 아전을 잡으러 평안으로 갔어요.

어느 날, 창인은 연광정에 올라가 봄 풍경을 보다가 강가에서

술을 파는 예쁜 여인을 만났어요.

창인은 술을 마시다 “잘 곳이 없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다른 여인이 창인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그 여자는 허천대의 딸이에요.”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기생 일지라고 소개했어요.

《#12. 일지의 도움과 허천대 체포》

창인이 고맙다고 인사하자 허천대의 딸이 장정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일지는 급히 창인을 벽장에 숨기고 “여기 없어요!”라고 둘러대며 둘러보았어요.

“당분간은 여기에서 지내세요.”

일지는 동생 규도에게 창인이 쓴 편지를 전하게 하고, 사촌인 운선 기생에게 허천대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하라고 했어요.

창인은 준비한 역졸들을 보내 허천대 부녀를 붙잡고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쳤어요.

임금님께 돌아가 보고하자 임금님은 창인에게 동부승지를 제수했어요.

《#13. 일지의 가족 편입과 불안》

창인은 집에 돌아오니 박 소저는 아들 금석을, 최 소저는 딸 채순을 낳았어요.

창인은 부모님께 평양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특히 일지 덕분에 목숨을 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 진사와 두 소저는 “일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도 돼요.”라고 허락했고, 일지는 아들 평출을 낳았어요.

어느 날 두 소저가 바느질을 하면서 최 소저가 박 소저에게 말했어요.

“일지를 조심해야 해요.”

문 밖을 기다가던 장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정 진사에게 전했어요.

정 진사는 “최 소저의 질투일 뿐이야.”라고 생각했어요.

《#14. 일지와 원차들의 몰래 만남》

창인은 임금님에게서 호조 판서로 임명되어 대국으로 떠났어요.

기생으로 방탕하게 살던 일지는 사대부 집에서 바르게 살려나 따분했어요.

지루해하며 후원에서 배회하다가 집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원차들을 보게 됐어요.

일지는 담 너머로 몰래 보다 들은 눈이 마주쳤고, 그날 밤 차들은 담을 넘어왔어요.

두 사람은 밤마다 몰래 만났고, 가족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최 소저가 그걸 보게 됐고, 일지는 울며 “최 소저가 저를 모함해요!”라고 거짓말했어요.

정 진사는 “달래 줘야겠군요.”라며 일지를 위로했어요.

《#15. 은지환과 거짓 편지》

일지와 차들은 어떻게 하면 최 소저를 곤란하게 만들까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 일지는 최 소저의 **은지환** 한 쌍을 훔치고, 최 소저가 쓴 것처럼 편지를 써서 그 안에 은지환을 넣어 봉했어요.

그리고 차들에게 시켜 방물장수(물건을 파는 사람)를 불러왔어요.

일지는 방물장수에게 **돈과 편지**를 주며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방물장수가 와서 최 소저 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자 일지는 방물장수 짐을 뒤져서 편지를 꺼냈고, 방물장수는 놀라 도망쳤어요.

편지를 보니, 최 소저가 **강환양**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보낸 **사랑 편지**였어요.

정 진사는 화가 나서 최 소저에게 “은지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최 소저는 찾지 못해 울었어요.

시비 금연을 통해 소식을 들은 박 소저가 무슨 일이나고 묻자 정 진사는 편지를 보여줬어요.

박 소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냥 돌아왔어요.

최 소저는 “이건 **일지의 함정**이에요!”라며 억울해했어요.

《#16. 담을 넘는 차들의 계약》

그날 밤, 일지는 차들에게 “**최 소저 방 아래** 숨어 있다가 난리가 나면 담을 넘어 달아나세요.”라고 말했어요.

일지가 정 진사에게 “**수상한 소리**가 들려요!”라고 하자, 정 진사가 별당으로 가 봤더니 정말 어떤 남자가 최 소저 방문 앞에서 담을 넘고 있었어요.

정 진사는 일지와 의논하여 “박 소저도 내쫓아야겠다!”라고 했지만, 장 부인과 박 소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요.”라고 말했어요.

일지는 계속 부추겼지만, 정 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7. 아이들을 해치려는 나쁜 계획》

어느 날 차들이 말했어요.

“박 소저와 최 소저를 한꺼번에 쫓아낼 방법이 있어요. 박 소저 아들 금석과 일지 아들 평출을 죽이고, 그 죄를 최 소저에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처음에 일지는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라며 망설였지만, 차들이 계속 꼬드기자 결국 마음을 바꿨어요.

일지는 다듬잇돌을 평출 가슴 위에 올리고, 금석 목을 수건으로 졸랐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는 척했어요.

시비를 불러 “**평출을 데려오라.**”고 하니, 시비가 “**평출이 죽었어요!**”라고 하자 일지는 울부짖었어요.

박 소저가 놀라 금석에게 가 보니, **금석도 죽어 있었어요.**

《#18. 여승의 도움과 기적》

그때 지나가던 여승이 “무슨 일이에요?”라고 묻자, 박 소저는 “우리 아기가 죽었어요.”라고 말했어요.

여승은 “꿈에서 금강산 신령님이 준 약이에요.”라며 **환약 한**

알을 주었어요.

박 소저가 환약 반 알을 갈아 금석에게 먹이자 금석이 깨어났어요.

정 진사는 “이건 다 최 소저 잘못이야!”라며 최 소저를 내쫓았고, 최 소저가 떠날 때 시비 초향이 따라갔어요.

《#19. 천불사로 가는 길》

최 소저와 초향은 밥을 빌어먹으며 살다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되고 비가 내리자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 불빛을 보고 따라가니 보봉산의 **장 도사** 집이 나왔어요.

최 소저는 장 도사에게,

“**전 어디로 가야하죠?**”

라고 물었더니, 장 도사는 편지를 주며

“천불사에 있는 여승인 내 딸 **정수제**를 찾아가세요. 도와줄 거예요.”라고 했어요.

천불사에 간 최 소저가 편지를 전하자 정수제가 반갑게 맞으며 잘 챙겨줬어요.

《#20. 금석을 없애려는 음모와 구출》

일지는 최 소저를 쫓아낸 뒤 더 건방져졌어요.

정 진사는 일지를 사랑해 집안의 모든 살림을 일지에게 맡겼어요.

그러자 일지는 차들에게 “**이참에 박 소저와 금석도 없애버리자고요.**”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몰래 금석을 안아 차들에게 넘겼어요.

차들은 금석을 없애기 위해 물가로 가다가 우연히 **언목**이라는 거지를 만났어요.

차들은 언목에게 돈과 금석을 건네며 “**이 아이를 깊은 물에 던져 주세요.**”라고 시켰어요.

한편, 박 소저는 금석이 사라진 걸 알아채고 금석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언목이 폭포 물가에서 금석을 던지려 할 때, 천불사의 여승 **정수제**가 다가와 “무슨 사연이에요?”라고 물었어요.

언목은 “어미 없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고생하고 있어요.”라며 둘러댔어요.

그러자 정수제는 언목에게 돈을 건네며 “**그럼 아이를 저한테 주세요.**”라고 했어요.

언목은 기뻐하며 금석을 정수제에게 주고 떠나버렸어요.

천불사에 있던 최 소저는 정수제가 금석을 업고 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 소저는 금석을 받아 안고 울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정수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21. 박 소저를 노리는 음모와 신령의 꿈》

한편, 일지와 차들은 이번 기회에 **박 소저**까지 해치려고 마음 먹었어요.

차들은 자신의 친구 **봉돌**의 계획을 따라 박 소저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박 소저는 꿈에서 **금강산 신령**을 만났어요.

신령은 “큰 옥을 당할 테니 멀리 떠나세요.”라고 조언하고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꿈에서 깬 박 소저는 마음이 불안해 장 부인을 찾아가 “제가 이런 꿈을 꿴어요…”라고 말했어요.

장 부인은 놀라며 “저도 **같은 꿈**을 꿴어요.”라고 했어요.

박 소저는 “그럼 저는 최 소저의 딸 채순을 데리고 갈게요.”라고 말했지만,

장 부인은 “당신도 몸 추스르기 힘든데 아이까지 데리고 가는 건 힘들 거예요. 채순은 두고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이때 정 진사가 큰방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에요?”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박 소저가 “제가 이런 꿈을 꿴어요…”라고 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 진사는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꿈이란 건 허상에 불과해요.”라고 말하고는 나가 버렸어요.

《#22. 무술암으로 간 박 소저》

저녁에 대문 밖에서 **광대놀이**가 열리자, 박 소저는 시비 운선에게 채순을 맡기고 큰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꿈 속에 나타났던 신령이 나타나 박 소저를 이끌어 **무술암**이라는 절로 데려갔어요.

여승은 “여긴 금강산 무술암이에요.”라고 하며 박 소저를 맞이했고, 박 소저는 그곳에 머물렀어요.

《#23. 봉돌에게 끌려간 일지》

봉돌은 박 소저를 납치하려 방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일지**를 보고 들쳐 업어 고양 읍내로 갔어요.

봉돌은 오두막을 사서 일지에게 **술장사**를 시켰고, 일지는 빚을 갚지 못해 울며 지냈어요.

어느 날 **박 소저**가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가사**로 썼는데, **화수제**가 몰래 보고 “멋진 글이에요!”라며 베껴 두었어요.

화수제는 **천불사**에 가서 정수제와 최 소저에게 가사를 보여줬고, 최 소저는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최 소저는 새 가사를 써서 화수제에게 “박 소저에게 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박 소저는 가사를 받고 “살아 있구나!”라며 기뻐했어요.

《#24. 창인의 귀국과 진실 찾기》

창인은 대국에서 돌아오다가 고양 읍내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일지**는 **봉돌**에게 매 맞으며 지내다가 견디기 못해 **기돌**이라는 남자와 달아나려다 했어요.

이를 알게 된 봉돌이 두 사람을 붙잡아 때리다가 기돌을 죽이게 됐죠.

그 죄로 봉돌과 일지는 감옥에 갇혔어요.

일지는 기생에게 부탁해 창인에게 말을 전했고, 창인은 “일지를 데려오세요.”라고 했어요.

일지는 옥에 갇힌 이유를 거짓으로 말했고, 창인은 일지의 사

형을 미뤘어요.

《#25. 가족들이 다시 만난다》

그날 밤 창인은 꿈에서 신령에게 “집안에 일이 터져서 **박 소저**는 **무술암**에, **최 소저**는 **천불사**에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창인은 집안이 걱정되어 봉돌을 벌주고, 일지는 괴산 관청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또 박 소저와 최 소저를 본가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어요.

“천불사와 무술암에 있는 박 소저와 최 소저를 괴산 본가로 보내거라. 지역 현감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창인은 집으로 가 부모님께 지난 일을 물었지만 대답을 들지 못했어요.

답을 듣지 못한 창인은 하인들에게도 물었어요.

그 때, 초옥과 백설이 “**모든 건 일지와 차돌이 한 일이에요.**”라고 알려줬어요.

창인은 화가 나 차돌을 잡아 청주로 보냈어요.

《#26. 모두 풀린 오해와 행복한 결말》

박 소저와 최 소저가 정 진사 집에 돌아오자 정 진사와 장 부인은 잘못을 **고백**하며 사과했어요.

창인은 일지와 차돌을 조사했고, 두 사람은 모든 걸 털어냈어요.

창인은 차돌에게 **사형**을 내렸고, 일지는 예전에 창인을 도운 공을 인정해 멀리 **내쫓았어요.**

나중에 박 소저와 최 소저는 창인에게 정수제와 화수제의 도움을 말했고, 창인은 그들을 불러 상을 주었어요.

박 소저와 최 소저는 각각 삼남 일녀를 낳았고, 창인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ㅋㅋ)

장 부인: “애 피곤해 보이네~ 어서 자러 가라~”
밤 되자 광철, 잠도 안 옵.
규봉 찾아가서: “헤어지기 아쉽네요ㅎㅎ”
규봉: “하루만 더 있어요~”
광철: 하루종일 규봉 옆에 붙어있다가 “가사 하나 써주세요~”
규봉: (수줍게) 써줌.
광철: (화답으로) 가사 써줌.
규봉: (광철 가사 보고) “?!? 속았어!! 다 내 잘못이야!!!” → 문 밖으로 뛰어나가 자책 ON
광철: 규봉 필낭 들고 돌아옴.
박 소저: “잘했다 오빠 나이스샷ㅋㅋㅋㅋㅋㅋㅋㅋ”
정 진사: “하...광철이 사... 조져야겠네?” → 동자 보내서 광철 혼내라고 시킴

《#10. 혼사와 과거 시험》

정 진사, 박춘천, 최 승지 → 모여서 혼사 회의
박춘천: “규봉이랑 광철 혼사 ㄱㄱ”
정 진사: “좋다ㅋㅋ 쌍둥이 창인도 같은 날 혼인하자ㅋㅋ”
창인, 광철 → 과거시험 출격
결과? 창인 1등, 광철 2등, 둘 다 개엘리트.
임금님께 가서 상황 다 보고함.
임금님: “오케이ㅋㅋㅋ 같은 날 결혼 ㄱㄱㄱㄱㄱㄱ”
창인 → 최 소저, 박 소저랑 결혼.
광철 → 규봉이랑 결혼.
현감들 와서 시 짓고 어화등등 잔치판 대폭발.

《#11. 평안도의 탐관오리 조사》

평안도 → 흉년 터짐.
임금님: “창인, 니가 어사로 가라.”
창인 → 평안으로 ㄱㄱ
연광정에서 풍경 보다가 강가 술 파는 초미녀1 만남.
창인: “잘 곳 없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ㅎㅎ”
뒤에서 갑자기 다른 초미녀2가 창인이 옷자락 잡음.
“잠깐만요! 저 여자는 허천대 딸이에요!!”
초미녀2는 기생 일지 드드등장

《#12. 일지의 도움과 허천대 체포》

창인: “고맙다ㅋㅋㅋㅋ”
근데 허천대 딸, 장정들 데리고 들이닥침
일지: “여기 없어요!!!” → 창인 벽장에 숨김.
“당분간 여기 계세요~”
일지: 동생 규도 시켜서 창인 편지 전달, 사촌 운선 기생 시켜서 허천대 술 먹이고 재움ㅋㅋ
창인: 역졸 출동 → 허천대 부녀 체포.
“암행어사 출두요!!!!!!!”
임금님한테 보고하니 동부승지 제수 등극 나이스.

《#13. 일지의 가족 편입과 불안》

창인 랩업하고 집 귀환.
돌아오니 가족 머릿 수 많아짐.
박 소저 → 아들 금석 낳음.
최 소저 → 딸 채순 낳음.
창인: 부모님께 평양 이야기 다 함, 특히 일지 덕에 살아남았다고 자랑.
정 진사, 두 소저: “음 킹정. 일지 가족으로 받아줘도 됨 ㅇㅇ”
결과? 일지 → 아들 평출 낳음.
근데... 두 소저가 바느질하다 수근수근.
최 소저: “야... 일지 조심해야 돼...”
그 얘기 장 부인 몰래 듣고 정 진사한테 전달.
정 진사: “아 뭐랴ㅋㅋㅋㅋ질투일 뿐이야ㅋㅋㅋㅋ” ← 스니 안일ㅋㅋㅋㅋㅋㅋ

《#14. 일지와 원차들의 몰래 만남》

창인: 호조 판서로 대국 출발. 집 또 나감.
일지: ‘아오... 기생 출신인데 사대부 집에서 바르게 살려니까 너무 심심하다...’
딱 마침 후원에서 배회하다 마당서 노래 부르는 원차들 발견.
딱 자기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거든ㅋㅋㅋㅋㅋㅋ
일지: (담 너머 몰래 훑쳐봄)
눈 마주침 → 밤마다 담 넘어 몰래 만나러 옴
근데 어느 날 최 소저가 봄ㅋㅋㅋ 스됐지만 압삽한 일지 당황하지 않고
일지: (급 울기) “최 소저가 저 모함해요ㅠㅠ” → 정 진사: “달래줘야겠군...” ← 역시 안일ㅋㅋㅋㅋ어휴 ㅂㅂ

《#15. 은지환과 거짓 편지》

일지, 차돌 → 최 소저 옛먹일 계획 세움. 슬슬 선 넘을라함ㅋㅋ
최 소저 은지환 훑치고, 최 소저인 척 편지 씀.
편지 봉투에 은지환 넣음.
방물장수 불러서 “내일 우리 집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ㅇㅋ?”
다음날 방물장수 등장 → 최 소저 방 들어갔다 나옴.
일지: “어머나~ 짐 좀 뒤져볼까?” → 편지 발견.
방물장수: “아이쿠!!!!” → 도망ㅋㅋ
편지 열어보니 강환양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이 사람은 누군덱ㅋㅋ
정 진사: “은지환 어디 있느냐!!!” → 최 소저: (울음) “몰라요ㅠㅠ”
박 소저: (얘기 듣고) “뭐야...아 이거 진짜 맞아?? 에반테” → 일단 그냥 돌아감.
최 소저: “이거 다 일지 함정이야!!!!!!”

《#16. 답을 넘는 차들의 계약》

그날 밤 일지: “차돌, 최 소저 방 밑에 숨어있다가 난리 나면 담 넘어서 튀어라. 카 나 스니천재.”
일지: “수상한 소리 들려요!!” → 안일한 정 진사 출동ㅋㅋ

가보니까 진짜 어떤 남자 최 소저 방문 앞에서 담 넘는 중
정 진사: “하 박 소저도 내쫓아야겠군...”
장 부인, 박 소저: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일지: (계속 부추김ㅋㅋㅋㅋ)
정 진사: (그래도 일단 대답 안 함) ← 올 희망의 끈ㅋㅋㅋ

《#17. 아이들을 해치려는 나쁜 계획》

차돌: “야 일지, 박 소저랑 최 소저 한 번에 쫓아내는 법 알아?
금석이랑 평출 죽이고 죄 덮어씌우면 됨ㅋㅋ”

일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 차돌 계속 꼬드김 →
일지 결국 넘어감.

→ 다듬잇돌 평출 가슴에 엮고, 금석 목 졸라놓고 시치미 뚝.
선 스니 넘음:::

시비: “평출이 죽었어요!”

일지: (바로 대성통곡) 메소드 뒤집어짐.

박 소저: 금석 보러 갔더니 애도 죽어있음ㅠㅠ

《#18. 여승의 도움과 기적》

여승 지나감: “무슨 일이에요?”

박 소저: “애가 죽었어요ㅠ”

여승: “꿈에서 금강산 신령님이 준 약임. 대충 각 나오지? ㄱ
ㄱ.” → 환약 반 줌.

반 EP서 금석 입에 넣자 금석 깨어남.

정 진사: “다 최 소저 잘못이다!” → 최 소저 쫓아냄.

최 소저: 떠나면서 시비 초항 데리고 감. 가족 파괴전 full 진행.

《#19. 천불사로 가는 길》

최 소저, 초항: 밥 빌어먹으며 떠돌ㅠㅠ

밤중에 산속에서 비 맞으며 길 잃음.

불빛 보고 따라가니 장 도사 집.

장 도사: “내 딸이 여승인데 이름을 정수제. 천불사에 있는 거
기 가봐라. 도움 줄 거임.ㅇㅇ”

최 소저: 천불사 도착 → 정수제한테 편지 전하니 바로 vip 대
접.

《#20. 금석을 없애려는 음모와 구출》

최 소저 쫓아낸 일지 기고만장 하늘을 찌름.

일지: “이제 박 소저랑 금석도 치워버리자.” → 금석 안에서 차
돌에게 넘김.

차돌: 물가로 감.

언목 거지 만나서 “애 좀 깊은 데 던져주셈.”

언목: “ㅇㅋ 개꿀.”

하지만 그 순간 정수제 등장.

정수제: “애 주세요, 돈 줄게요.”

언목: “어라? 돈 준다네? ㄱㅇ드.” → 금석 넘김.

최 소저: 금석 되찾고 눈물범벅.

《#21. 박 소저를 노리는 음모와 신령의 꿈》

차돌, 봉돌 불러와 “박 소저도 잡자.”

그날 밤 박 소저 꿈에 신령 뜸.

신령: “큰 욕 당하니 멀리 가라.”

박 소저: “어머님...나 이런 꿈 꿔어요...”

장 부인: “헐, 나도 똑같은 꿈...”

박 소저: “그럼 일단 채순 데려갈래요.”

장 부인: “너도 몸 추스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데려가 예
바야:::”

정 진사: (등장) “무슨 일?” → 애기 들고: “꿈은 헛것임ㅋ”
→ 그냥 나감. 싸늘하다.

《#22. 무술암으로 간 박 소저》

저녁에 대문 밖에서 광대놀이 열림.

박 소저, 시비에게 채순 맡기고 큰방 가려다 신령 나타남.

신령 따라 무술암으로 감.

여승 등장: “여긴 금강산 무술암입니다.”

박 소저: 이제 절에 박제됨.

《#23. 봉돌에게 끌려간 일지》

봉돌: 박 소저 잡으러 방 갔더니 비었음.

“뭐지?” → 대신 일지 납치함ㅋㅋㅋㅋㅋㅋㅋ으잉??

고양 읍내에서 술장사 시킴.

일지: 빗더미에 떨어 눈물질질ㅠㅠ

어느 날 박 소저, 한 칸에서 슬픈 가사 씀.

화수제: 몰래 읽고 감동함.

“개 찼다.....ㅠㅠㅠㅠ”

천불사 가서 정수제·최 소저에게 보여줌.

최 소저: 울음 ON. “살아있었구나!ㅠㅠㅠㅠㅠㅠ 영영”

최 소저: 새 가사 써서 전달 요청.

박 소저: 가사 받고 “최 소저도 살아있구나!ㅠㅠㅠㅠ” → 감격
모드.

《#24. 창인의 귀국과 진실 찾기》

창인: 대국에서 귀국 중 고양 읍내 들름.

일지: 봉돌한테 맞으며 살다 기돌이랑 도망치려다 실패.

기돌, 봉돌한테 맞아 죽음.

결국 둘 다 감옥행.

일지: 기생 통해 창인에게 소식 전달.

창인: “일지 데려와라.”

일지: 거짓말로 상황 둘러냄.

창인: “음... 일단 사형 보류.”

《#25. 가족들이 다시 만나다》

그날 밤 창인 꿈에 신령 재등장.

신령: “박 소저 무술암, 최 소저 천불사에 있다.”

창인: 봉돌 벌주고, 일지 괴산 관청으로 보냄.

“박 소저, 최 소저 본가로 모셔와라. 현감이 동행할 것.”

창인: 집 와서 부모·하인들한테 전부 물음. 부모는 대답을 안해
줌::: 근데 하인들이 와서

초옥, 백설: “전부 다 일지랑 차돌 짓임.” 라고 함. ㅅㅅ

창인: “차들이사ㄱ 청주로 끌고 가라.”

《#26. 모두 풀린 오해와 행복한 결말》

박 소저, 최 소저 분가 귀환.

정 진사, 장 부인: “미안하다, 다 우리 잘못이야...”

창인: 일지, 차돌 조사 시작.

차돌: 사형 선고.

일지: 과거 도움 인정해 멀리 유배.

정수제, 화수제: 상 받음.

박 소저, 최 소저: 각자 삼남 일녀 나눔.

창인 가족: 최종 결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삼.

- 박인로, 선상탄 -

작품 쉽게 읽기

이야기 ver

옛날, 한 나라에 전쟁터에서 싸우는 한 장수(무인)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병들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장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 몸이 약해져서 원통한 마음을 풀기 어려울 것 같군...”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제갈량도 살아있는 사마의를 몰아냈고,
“발 없는 손빈(중국 병법가)도 방연(적장)을 치치하지 않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고, 두 팔과 두 다리도 멀쩡한데, 쥐떼처럼 물려오는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좋아, 나는 내 배를 타고 전투의 선봉에 설 것이다!”

그는 전투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마치 가을 서릿바람이 나뭇잎을 흩어버리듯 적을 차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장수는 왜적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섬나라 오랑캐들이야, 어서 항복해라!”

“칠종칠금(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가 풀어준 일)도 우리가 못 하겠느냐?”

그는 적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다. 굳이 너희를 모두 섬멸할 필요는 없다!”

장수는 임금님의 성덕과 자비로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임금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고집을 부리면 전쟁을 피할 수 없겠지만, 항복한다면 목숨을 보장하마.”

그러나 장수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평한 세상이라면, 지금쯤 백성들은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처럼 평화롭게 살고 있겠지?”

그는 임금님의 성덕(일월 광화)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태평한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해와 달처럼 빛나는 존재인데, 이 전쟁만 끝나면 태평성대가 올 텐데...”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전선(전쟁을 위한 배) 위에서 있었습니다. 장수는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는 전선이 아니라 어선을 타고 고기나 잡으며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찾아올 평화로운 날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파도 없는 조용한 바다에서, 가을달과 봄바람을 맞으며 편히 쉬고 싶구나.”

장수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와 함께, 전쟁이 끝나고 다시 찾아올 평화로운 날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MZ ver

옛날, 몸도 개판인 장수(무인)가 전쟁터에 던져졌음.
“아 진짜 몸 상태 최악인데, 이 전쟁을 어찌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몸이 아프다고 전쟁 안 할 거냐?ㅋㅋ”

장수: “아... 몸도 안 좋은데, 이 원한을 풀 수 있을까?”
하지만 곧바로 정신 차림.
“근데 제갈량은 죽어서도 사마의 조졌잖아?”
“손빈(중국 병법가)은 다리도 없는데 방연(적장) 잡았고.”
그리고 스스로 다짐함.
“나는 살아 있고, 두 팔 두 다리 멀쩡한데?ㅋㅋ”
“저 쥐떼 같은 왜적들 따위가 무섭냐고?”
그러면서 전쟁 깡패 모드 ON.
“좋아, 배 타고 선봉으로 가서 적들 썩 정리한다!”
“가을 서릿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싸그리 쓸어버릴 거다!”
장수, 갑자기 적들 쪽 보고 올타임 레코드급 선빵 날림.
“야, 섬나라 오랑캐들이야! 빨리 항복해라!”
“칠종칠금(제갈량이 맹획을 7번 잡았다 놓아줌)도 우리가 못 하겠냐?”

적군들: (동공지진)
장수: “솔직히 니들이 항복하면 살려줄 수도 있음. 우리 임금님이 자비로우셔서 같이 살아보자 하셨거든?”
적군: (살짝 후함)
장수: “근데 끝까지 버틴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ㅋㅋ 내가 아주 싸그리 정리해준다~”
사실 장수는 전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내고 편하게 살고 싶었음.

장수, 전쟁 배 위에서 멍 때리며 현실 자각함.
“아...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여기 맞나?”
그는 속으로 태평한 세상을 상상함.
“전쟁만 끝나면, 백성들은 요순 시대처럼 행복하게 살겠지?”
“우리 임금님은 성덕이 높아 해랑 달처럼 빛나는 분인데...”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배 위에 있냐고ㅋㅋ”
그러다 문득 떠오름.
“전쟁 끝나면, 나는 전선(전투 배) 말고 어선(낚시 배) 타야겠다.”
“바다에서 가을달, 봄바람 맞으면서 그냥 한량처럼 살고 싶다 πππ”

장수는 진심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날이 오길 기도함.
“진짜 파도 없는 바다에서 편하게 낚시하는 날이 와야 한다.”
장수의 머릿속엔 이제 싸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미래밖에 없었음.

내신형 OX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려울 듯하건마는
 그러나 **죽은 제갈도** 산 중달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도 방언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을 갖추고 목숨을 이었으니
취때 개때 도적들을 잠시나마 저어할쏘나
 비선(飛船)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칠종칠금*을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어서 항복하러무나
 행복한 자 안 죽이는 법 너를 굳이 섬멸하라
 우리 임금 성덕이 더불어 살자 하시니라
 태평천하에 **요순 군민(君民)** 되어 있어
일월 광화(光華)는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전선(戰船) 타던 우리 몸도 어주(魚舟)에서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 있어
 성대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 박인로, <선상탄>

*칠종칠금(七縱七擒): 촉나라의 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이나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주었다 함을 뜻함.

- 20) 화자는 오랑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21) '죽은 제갈', '발 없는 손빈' 과 같은 고사를 인용하여 왜구를 무찌르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낸다.
- 22) '취때 개때 도적'은 왜군을 뜻하며 설의법을 통해 이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 23)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구절을 통해 명시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항복을 권유한다.
- 24) '요순 군민(君民)'은 태평성대의 백성을 의미한다.
- 25) '일월 광화(光華)'는 해와 달의 빛으로 임금의 성덕을 뜻한다.
- 26) '아침마다 거듭하거늘'은 태평성대가 지속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표현이다.
- 27)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어주에서 노래하고'는 대구법을 통해 태평성대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나타난다.
- 28) '파도 없는 바다'는 평화로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표현이다.
- 29) 화자는 임금의 성덕을 내세워 왜군에게 관용의 태도를 보여줄과 동시에 태평성대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 30) 화자는 전란을 하나의 결핍으로 여기고 전란 없는 태평성대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시공간임을 드러낸다.

- 20)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